

## CASES

## 조정중재사례 소개

## | 명예훼손 사례 | 인터뷰 발언을 왜곡 보도,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 삭제

A 지면 및 인터넷신문은 신청인이 군복무 시절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8년째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군대가 나를 망쳐 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군 시절 피해를 본 사실과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없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언론사가 반론보도 게재와 기사 삭제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인터넷신문에 반론보도가 게재됐고, A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해당 기사가 매개된 B 및 C 포털에서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

## | 초상권침해 사례 |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손해배상금 150만 원으로 조정성립

B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는 주부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영상은 추석 2개월 여 전의 영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상소비”와는 무관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인터넷 보도영상을 삭제한 점을 고려해 당사자를 설득한 결과, 자료화면 표시 없이 보도내용과 무관한 영상을 보도한 점에 대해 B 방송사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됐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미자** \_ 오래전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로 증명서 발급하러 갔다가 「언론  사람」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반 잡지책과는 달리 법, 언론 등 머리 복잡한 것들이라 읽어보지도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하고 알찬 내용에 빠져들어 공감하며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읽는 애독자가 됐습니다. ‘피신청인 후기’를 읽으면서 조리 있는 적절한 설명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이 많은 공부가 돼 참 좋았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적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알차고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문희** \_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고 접하지 않는 곳 또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외홍보지인 「언론  사람」을 보면서 실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10월호 중에 「갈등해소는 사실관계 존중으로부터」라는 글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왜곡된 기사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많아 독자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을 볼 수가 없고 뉴스나 기사에 생각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fact)을 다루는 뉴스는 주장(view)을 다루는 사실이나 칼럼과는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를 배제하는 가치중립적(value-free) 문장이다”라는 글귀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이나 반론,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담은 「언론  사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승현** \_ 시사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근거없는 비방 중상과 편향적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어 법적인 소송을 해본 경험 이후로, 정당한 주장과 의견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편파성과 일단 흥행성을 위해 막무가내로 기사화하는 관행을 우려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고민하던 시점. 동료의 권유에 의해 「언론  사람」을 구독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던 우려와는 달리, 실생활에서 다 가설 수 있는 소재와 테마로 콘텐츠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저도 모르게 첫 머리기사부터 끝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내려 갈 정도로 독자를 배려한 구성에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10월호 위원단상 코너의 「갈등해소는 사실관계 존중으로부터」라는 칼럼에서 매스컴 종사자에게 있어 ‘사실’과 ‘주장’을 명확히 할 의무와 사명감에 대해 지적인 부분은 절절히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언론관계 직업을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귀감과 교훈이 되는 글이었습니다.